



ID저장
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 노무현이야기**
- ▶ 걸어온 길
 - ▶ 말과 글
 - ▶ 함께 생각해봅시다
 - ▶ 추모게시판
 - ▶ 좋은글과 영상
- 대통령기록관
 16년 대통령 웹기록
- 참여정부자료실
 청와대브리핑
- 봉하마을
- 봉화살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 추모페이지

▶ **말과 글**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조회수 : 124448
 등록일 : 2008.02.29 10:37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1만 개가 넘는 글을 보고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 곳에 들어와 열심히 보고는 있지만,
 그동안 답장 못 해서 미안합니다.

집 청소하고 짐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짐들 정돈하느라 한 손에는 이사짐 들고,
 한 손에는 갈레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어야 하고,
 환영식 때 수고했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려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당장은 집안 정리하느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 홈페이지도
 주제를 놓고 서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일로 바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틈틈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출력하기

- 빠른 메뉴**
- 글로벌네트워크
 - 부산지역위
 - 광주지역위
 - 제주지역위
 - 전북지역위
 - 대구·경북지역위
 - 전남지역위
 - 대전·충남지역위
 - 동호회
 - 봉하 오는 방법
 - 묘역 안내

9
 이달의
 비탕화면
 오늘 하루 열지않음

총평 119개

coolguy 2008.03.13 15:04

ㅎㅎㅎ 제가 첫 댓글을 남기는 군요...
 나이 먹고 댓글놀이 하다니...그래도... 좋네요... 일등입니다..건강하시고...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참 재미 기간에
 는...무심한 저였는데요.....그만 두시고 나니..더 생각 나네요..^^

로빈 2008.03.13 22:12

수고하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평범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항상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식 많이 올려주세요
 건강하세요*^^*

노경사 2008.03.14 15:20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그날 을 위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마니 2008.03.14 17:10

감사드립니다.
 글에 대한 답변 하시는 것도 보통일이 아닐텐데요..
 고향에 오셔서 심신이 편한 생활을 하셔야 할분이 또다른 힘든 업무를 하시게 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

드립니다.

티끌 2008.03.15 19:30

건강하세요.
인터넷 아고라에서 소식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술찬 2008.03.18 08:51

건강하세요...^^*
좋은 공기와 환경에서 좋은 생각 많이 해주시고 주변 이웃분들과 함께 즐거운 삶 영위하세요.

가네 2008.03.19 12:58

그릅습니다
건강하세요

꺼무신 2008.03.21 12:40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처음 가입하엿습니다 항상건강하고 감사드립니다

No.1 President 2008.03.23 12:39

늦어 죄송합니다.
오늘에서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의 마음속에 평온함을 주시는 당신을 위해 많은 활동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일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떼배몽 2008.03.23 13:04

제주에서 응원합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처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저도 여유가 되면 꼭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송사리한마리 2008.03.23 18:07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
대통령으로서도 크게 모난거 없이 잘 하셨지만, 모범적인 전임 대통령이었다는 평을 후세에 전하는 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장위동청년 2008.03.23 21:35

항상건강하시고...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선택한 노무현 전대통령님께 이렇게 짧은글을 남기는것도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항상 전노대통령님이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건강하세요^^

에어컨 2008.03.24 22:41

안녕하세요..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재미때는 힘드셨는데 퇴임 후에는 더 멋있으십니다. 요즘 인기가 폭발하신텐데 인기관리 좀 하셔야겠네요.^^

노무현짝사랑 2008.03.25 14:48

진정 사랑합니다.
항상건강하세요.

★양女★ 2008.03.26 05:15

건강하세요~~
잉~ 보고싶어요~~~~~;;

태양 2008.03.26 08:17

이사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사하면 적어도 2,3달은 틈틈히 정리하셔야 할겁니다.

차칸남자 2008.04.03 22:26

놀랍습니다
걸레들과 청소를 하신다는 소리에 왜 웃음이 나올까요?
엄격했던 청와대 생활에서 나오시니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저도 매일 걸레들과 청소합니다 ㅎㅎ
보기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소서

노간지킹왕짱 2008.05.08 00:08

감사합니다.
미안하다뇨,
저희가 감사할 뿐입니다.

판따라블루스 2008.05.10 21:18

안녕하세요
오늘처음 가입하고 인사드리고 가가요~~

노랑시민 2008.07.27 20:48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구.. 지금처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저도시간내서 놀러가 볼게요..

신짱♥ 2008.12.03 21:42

안녕하세요^^오늘 처음와봤어용~좋은글 많이 보고가겠습니다><

수성 2009.04.02 13:44

언제쯤 다시 답글을 볼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노대통령지지자 2009.04.13 20:37

노무현 대통령 각하! 옥채만강 하옵신지요?

지금의 작태는 소위 소인배 협잡꾼들이나 작당하고 개망나니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야말로 훗날 대한민국의 가장 현명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구요? 대통령 각하께서는 고질적인 한국의 기득권에 대해서 당당히 맞섰으며 힘없는 백성의 편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앞날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셨으니까요?. 민주주의는 만 백성의 것이며 민주정치는 만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철학을 제시하셨고요. 민주주의의 진정한 방법은 만 백성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약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으니까요. 각하의 값진 비전은 아무리 휘몰아치는 세파에도 고귀한 가치를 발할 것이니까요. 오늘의 어려움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한 때 중상모략에 의한 탄핵의 고통도 잘 참아왔듯 말입니다. 정말 한심한 정치신인이나 하는 수 아마추어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수(박연차사건 집중거론)를 쓰는 그들은 수년 전에 차떼기로 해먹은 저들이 의도적으로 모든 방송과 언론을 동원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얼렁뚱땅 한표 얻으려고 알팍한 술수를 쓰고 있음을 지각있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흐르는 물은 일시적으로 독을 만들어 물을 가둘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자연의 진리이자 인간 만사의 순리입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사람은 만나서 손잡아야 정이 통하는데 이 MB 독재정권은 소통은 커녕 밀실에서 작당들이나 하니 심히 우리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정치하는 것거기가 소인배들이 당리당략으로 이권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상대방을 물에 빠뜨릴려면 내 몸에도 물이 묻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역사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 헐뜯었던 조선후기 영랑진창의 시절에 사는 듯 합니다. 대통령 각하 소위 지각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온 국민의 입을 막고 귀도막는 세상이니까요. 힘내세요 대통령 각하. 우리가 있잖아요

갑순 2009.04.14 23:31

건강하시죠. 혹 아프시면 안됩니다 전 50대주부로서 전대통령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늘 건강하세요...

sksdllQme 2009.05.01 14:40

전 개인적으로 국가대통령이면은 그정도 쯤 할수있는것이지 라고 말하고싶네요. 국가적 대통령이 될려면 얼마나 끈기와 의지와 노력을 많이했겠냐요

그리고 요즘 며;; 청년 미취업자들 많이 취업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

그것은 청년들이 문제죠.. -- 자기네 사람들이 3D업종을 안할려고 하니까 취업문제만 일어나는거죠.. -- 그리고 작은불이 큰불이 되듯이 작은돈이 큰돈이됩니다.. -- 솔직히 백수하고백조들처럼 돼지처럼 막먹고 싸고 놀고 하루가하고 하루 한살씩먹고 더먹고 그러면은 누가 돈을 준답니까.. 전 물론 재산없고.. 그렇지만은.. 저는 잘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진짜로..하늘에서 돈떨어지겠냐요.. 그런사람들도 다노력을 했는지요 한달적금80만원x12개월+10년=9600만원.. 이고 20년동안 모으면 2억가까이되겠죠? 전 이제야 21살이어서.. 사는거 시작도 안했지만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것은..사람이기때문에 할수있는것이다생각합니다..그리고 자기가 자기돈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구지 누가 머라하겠습니까? 예를들어서..이거 하고 같네요..자기가 돈벌어서 월급받아서..자기 친한사람한테.. 주고싶어서.. 주는거 하고 똑같네요.. --전 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 구지;; 재산없고..가난하지만은.. 전.. 잘사는 사람들도.. 다 그만큼.. 힘들고..그만큼..고생을 많이했겠지요..♥서민들중에서 이래서 못산다.. 저래서.. 못산다.. 하시는데..그러면은.. 10남매이상인사람들도 다 노력해서 잘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사람들..가지각색인데...돈을못번다..이래서.. 못번다.. 그런사람들에게 하고싶은말이.. 구지있다면은.. 땅파서..돈이나오겠습니까..하늘에서 돈이떨어질지니까?다른사람들은.. 다하는데..왜 님은 못합니까?이렇게 묻고싶고.. 그이유는..1.일할때.. 사장말이나.. 나보다.. 나이 어린것이.. 경력이있으면은.. 따라줘야하는데.. 나이때에...자존심때에.../일을안하거나..2.게으르거나3.머를 못배웠으면은... 배짱..로.. 일나가서 일해서..그사람들한테..배우면은.. 될것을.. -- 어느사람이 하는말이.. 사람이 태어난이유는.. 일하기위해서다.. 솔직히..그,말이.. 맞습니다.. 솔직히..사람이0살부터죽을때까지.. 일만하고살다가.. 죽는거지.. 놀라면은 /돈필요하고..돈얻어빌라면은.. 일해야하고..결국은..일이죠.. --일하면은....돈은저절로..벌리고...맞죠?전...노무현대통령.. 존경합니다..그리고... 왜 못하겠어.. 우리한국이.. 과거에는못살았는데..지금은...머리가.. 똑똑했기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했지.. 발전못한것은..머리가 아이큐가떨어진거고./흠..그리고.. 지구상의 모든인간은 다똑같은인간이고.. 문화와.. 종교와.. 종교만 다를것뿐이지..왜 자꾸머를..따지냐고요..내말은요노력한만큼 성과가 오는것이지..가만히 있으면은.. 밥주겠어..그렇다고..배불리..돈이생기겠넬..근데 머 법적으로..무슨죄라고성립이되서.. 머라고하지만은...힘내십시오..

물탱크 2009.05.03 19:48

오늘 처음 가입하여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찬찬히 서핑하려고 합니다..힘내시고요..두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노쟁어페이 2009.05.23 21:53

존경했어요...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기본기능 2009.05.24 01:57

전 대통령님이 존경스럽습니다.

windy_ 2009.05.24 02:57

소식전한다 늘 말씀하시곤.. 훌쩍 떠나시면 어떡해요.
벌써부터 소식이 궁금하다구요...!

세수하면효리 2009.05.24 12:06

보고싶어요..노무현대통령님...

화이트하우스맨 2009.05.24 14:04

오늘 처음 가입하였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늦었지만 따라가 불립니다.
고통없는 저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주세요.

원스 2009.05.24 15:56

사랑합니다..... 영원한 돌콩 노무현...

편히 쉬세요.. 2009.05.24 17:19

보고싶어요 노 대통령님..
너무 보고싶어요.. 눈물이 계속 자꾸만 흐르네요..
정말 하늘에선 부디 편안히 쉬세요.....

hyunju0445 2009.05.24 17:27

가슴이 찢어집니다..부디 좋은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hyunju0445 2009.05.24 17:27

가슴이 찢어집니다..부디 좋은곳으로 가지길 바랍니다..

슬피슬피 2009.05.24 17:51

미안하다는말 너무 자주하세요...^^
그만해도 되요 당신은
지금 눈물나게 밉지만... 힘드셨을테니까
이해해볼게요.....
사랑합니다.....

우리의아버지 2009.05.24 18:58

한손에 곁레들고 집청소하시는 당신의 모습 상상하니 눈물납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편안히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살으셨어야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자주 들리게요.
제 평생 이 흉피 가슴에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발자취가 있으니까요.. 편히 쉬십시오..불면증에 시달려 잠도 못주무셨을
텐데 행복한 꿈꾸십시오. 사랑합니다..

eoxxhdfud123 2009.05.24 20:19

사랑해요 노무현 사랑해요 노무현

네노 2009.05.24 20:20

사랑합니다...

노란잎 2009.05.24 21:05

나라의 큰 별 이 겠습니다. 정말 맑고 투명한 별하나가 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죄송합니다.
부디 편히 영면하십시오.

눈물계속난다 2009.05.24 21:25

절대 잊지않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한결이1 2009.05.24 22:33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정신을 잊지않겠습니다

한결이1 2009.05.24 22:33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정신을 잊지않겠습니다

하늘나라편히잠드소서 2009.05.24 23:31

너무나힘든세월을지켜내셨든분노무현대통령각하!
영원한안식처에서편히영면하십시오..흐르는눈물담을수가없습니다.
국민은알고있습니다.누가이렇게가시게만들었는지를.....

부끄러운 서민 2009.05.25 10:18

이제야.. 늦게..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곳에 들어와 봤습니다...너무 늦은 것인지..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왜이리 늦게야
철이 드는지...이름이 왜 '사람사는 세상'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사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남은 가족
분들 힘내세요. 꽃같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당당하게 세상을 맞이하시길...

안타플 2009.05.25 11:36

왜 하늘은 당신을 데려갔을까요? 왜 우리에게서 당신을 뺏아 갔을까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렵습니다. 항상 웃음띤 얼굴,남을 먼저 배려하던 따뜻한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그대로

오늘또힘내자 2009.05.25 12:59

ㄷㄷㄷㄷㄷㄷ// 울기만하네요 ㄷㄷ

▶◀잊지않겠습니다 2009.05.25 13:03

보고싶습니다...
그렵습니다...

짱!!현무노 2009.05.25 13:55

▶◀편히 가십시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sallycool 2009.05.25 18:04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좋은곳에서 편하게 쉬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저립니다...

가을대추 2009.05.25 19:26

봉하 마을이 저를 아프게 하네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니 그저 마음만 아플뿐 그저 그리워만 하고 있을수 밖에요

노대통령님사랑합니다7 2009.05.25 20:19

가슴깊이 사랑합니다..
영원히보고싶을거예요..편히쉬세요..
대한민국의 큰별 노무현대통령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고인의명복을됩니다

사랑하므로... 2009.05.25 22:25

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사랑합니다.
가슴이저립니다. 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 봅니다.....

보고싶어요~~이제는 볼수 없다는 것이 미치도록!! 가슴 저미도록 더 보고 싶게 만듭니다!!

울보a 2009.05.28 05:24

그립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분인지.. 아버지 같은 분이신지.. 국민을 생각하시는 분인지.. 다 똑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이나마 알게됩니다.. 그마음을..죄송합니다..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원통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셔야 했는지..혹시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슬퍼하고 계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부디 좋은곳으로 가셔서 편안해지세요.. 노무현대통령님은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해난다 2009.05.28 10:11

대통령님 가시고 6일째되는 날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좋지만 하네요. 당신이 없는데도 말이죠.
당신이 가셨는데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더 곁에 있어주지 그러셨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지 그러셨어요.
이 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지켜주지못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조만간 꼬옥 만나뵈려고 했는데...봉하마을 찾아가서 조금이나마 머리끝이라도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했는데...마음이 너무 아파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곳은 편안하신지.. 몇십년후 그때는 꼬옥 뵈수있겠죠. 사랑합니다.

인간아 2009.05.28 20:09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좋은곳에서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저희에게 아름다운바보님 근황과 그곳소식좀 알려주시고 평안 하시길 바랍니다

1213 2009.05.28 20:48

하늘에서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이제야알았습니다 2009.05.29 07:47

오늘이 발인식입니다.. 너무 슬픉니다..
정말 끊임없이 눈물이 나는군요..
왜 있을때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이제와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집 안뜰을 지키다는 이야기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픉니다..
나쁜 사람들..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했던..
부디 하늘에선 자유롭고 민주적인 꿈을 펼치는 우리들의 대통령으로 사시길 기도할게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시인과 촌장 2009.05.29 23:25

다른때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새벽4시에 절로 눈이 떠지더군요.
하루종일 티비보면서 울었습니다.
바보대통령에 바보국민 참 맞는말 가터요.
대통령님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하셨는데 국민들은 그 참뜻을 헤아리지 못했으니 바보고,대통령님은 그런 국민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진정 바보 맞네요.
국민들은 바보에서 벗어날테니 님은 계속 바보로 남아 백성들을 참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겁니다.
미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할겁니다.

사랑합니다.

기합돌이 2009.05.30 00:57

사랑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gobara 2009.05.30 01:14

정말 사람냄새 나는 우리 대통령님. 아직도 꼭 이 홈페이지 어딘가에게 글을 작성하고 계실것만 같습니다..

unforgettable 2009.05.30 02:00

노무현 대통령님...♥

행복 사랑 2009.05.30 11:23

어제 겨우 가입하고 당신의 발자취를 이제야 따라가 봅니다 좀더 일찍 와보고싶었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면 꼭 찾아가 뵈려고했는데...

민지초은맘 2009.05.30 15:40

그러게..진작 알았다면 자주찾아뵈텐데..죄송합니다..너무 늦었죠...그래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제주에서 2009.05.30 20:51

왜 바보 노무현인지 궁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이런 무지한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신거 같아 일주일 내내 가슴 아팠습니다..항상 잊지않고 대통령님 뜻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Hyperwon 2009.05.30 22:32

잊지 않겠습니다...영원히...

새벽소나무 2009.05.31 00:28

못나게 살았습니다. 반성 합니다. 예전엔 안그랬는데...제가이렇게 길 들여져 있었습니다. 이젠 반성 합니다. 참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속죄의 맘으로 응원 합니다.그렇게 살것을 맹세 합니다..

사랑합니다♥ 2009.05.31 10:09

수고하셨습니다 지극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영원히.....

그분의말 2009.05.31 13:23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로는 표현 못할만큼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십니다.

사당서 2009.05.31 19:31

너무나 늦게 당신을 안것에 죄송합니다..부디 그곳에선 편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또로또로 2009.06.01 01:13

정말 왜 몰랐을까요... 저의 무지함이 원망스럽습니다... 정치란것... 국회의원들이 막말하고 소리지르면...또 시작이구나...란 생각부터 정말 지긋지긋한 정치하는 사람들 덕에 점점 벽을 쌓아갔는데...
왜 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곳에 왜 단 한번도 들르지 못했을까요...
아...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꾸만 생각나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언제쯤 우리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나라가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알려주세요...T.T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전.. 제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줄 몰랐습니다...
유일한 대통령님...나의 가슴에 노무현이라는 비석하나 저도 세우겠습니다...
거기서는 아프시지 마세요....

제다 2009.06.01 05:02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당신을 사랑했고 지지도 했습니다. 빌려고 봉하마을에 신랑하고 갈려고 했는데 이렇게 훌쩍 가시다니요...비단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닐겁니다. 생전에 봉하마을에 가야한다고 마치 의무적인 행사처럼 생각한 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다니요..우리 시대에 님같은 분을 모실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힘이되드리고싶었으나 2009.06.01 09:54

우리들의 무지함이 당신을 보낸거라 생각합니다. 사극에서는 누가나쁜놈이고 누가 나라 말아먹는놈이고 다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네요. 역사가 입증하겠죠. 우리들에게 남긴 무언의 메세지...무지에서서의 탈출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jangvogo 2009.06.01 19:43

죄송합니다.

바보대통령님사랑합니다 2009.06.01 21:46

인간은 늘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인가 봅니다.
오늘도 대통령님의 글을 읽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렵니다.

aeonjia 2009.06.03 16:52

글을 읽으면... 대통령님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주시는것같이 들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T*T... 부디 부디 이승의 고통 수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는, 그 따뜻하신 미소 우러나는 행복한 삶 이루시길...빕니다...나무 아미타불...

정엄 2009.06.03 19:28

아... 바로 곁에 계시던 분이셨는데...

구카 2009.06.04 15:43

아...이렇게 따스하시던분이..대통령님께서 건강하시게 오래오래사셨음 얼마나 좋았을까요....이곳에서 따스한 대화나누고...가슴이 아프군요.
다시오실순없나요T.T.T.T대통령님!그럴일은 없겠죠?????
그래서 더 슬픕니다.....

kpoop 2009.06.04 17:15

너무너무 그립습니다...보고싶습니다..

부산 시민 2009.06.04 20:30

시간은 잘흘러가네요. 노짱님 멀리가신뒤 온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하얀비둘기 2009.06.04 20:53

한손에는 걸레를 들고...
대통령이기전에,,
똑같은 국민으로 똑같은 고민하며 살고싶어하셨던,,
그랬기에 사람냄새 물씬풍기던..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보고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글추천 2009.06.05 14:07

뒤늦게 사랑한 죄,
차마 염치 없지만 용서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님 때문에 많이 울고, 많이 가슴 아프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아픈 가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내마음의 대통령님으로 뒤늦게 제 가슴을 파고든 대통령님..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소서.....()

몽돌이1 2009.06.05 23:55

왜 가셨습니까? 승길나고 분이 나서 잠을 몇칠째 못자는 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살을 선택하셨는지... 전 솔찍히 집권하신 동안 별루 지지하진 않았습디다. 물론 표는 노대통령님께 했지만요 고인이 되신분께 이런 글을 남기는게 참 우습기도 하고 이런 글을 누가 읽어줄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이런글을 남기게 아무소용없지만 너무나 분하고 슬퍼서요 권여사님 두자녀분 가까이 살았더라면 좋은 친구오빠로 살수있었겠지만요 발인 전날 술에 취해서 다시 혼자 가까운 죽전신세계분양소에 갔습디다. 돌아가신 다음날 운동화에 추리닝입고 후배랑 조문한게 너무 마음이 아퍼서요 막걸리 3병 마시고 걸어서 갔습디다. 승길나서 눈물흘리고요 그래도 이해하지 못한건 왜 왜 아직까지 멧멧하게 살고 있는 전노대통령도 있는데 ..그래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때에..암튼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요 오늘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디다. 표적수사를 했다 면 스승 친벌을 받을거라했는데 전 노무현대통령님이 정확히 어떤 죄를 어떻게 졌는지 잘모르지만 표적수사라고 생각하고 슬취해서 제가 뵈말한지 잘모르겠네여 말짱한 정신차리고 다시스겠습니다, 아 그리고 서거하신날이 제가 주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체육 대회였는데 그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고 웃어야 하는데 우지도 못하고 암튼 노대통령님 미워요 돌아가실 /대 울고 집에 와서 뉴스보고 울고 자다가 울고 장례식때 울고 아드님 /따님 노정연씨보고 우고 사모님보고 울고 국민들 보고 울고 총소리에 울고 돌아가신 어머니 만큼 울었습디다.부디부디부디또 부디 해탈하시고 좋은곳에서 폭취시길 빕니다.암튼 너무 미워요 권여사님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말고 굿굿하게 건너 내십시요 당장이라도 부영이 바이 가고 싶어요

준연옥 2009.06.08 19:29

자살이 맞나요? 전 아직도 자살하신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럽고 보고싶어 생전 동영상만 보고 있네요.
남겨진 우리는 너무도 허망합니다..벼랑 끝에서 끄나풀 하나 잡고 있는 이 시국에 대통령님마저 가버리셔서 그나마 가졌던 희망이 절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의 올바른 철학과 이념..누구보다도 도덕적이셨던 당신을..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고싶습디다...사랑합니다...존경합니다...

고마워요바보 2009.06.12 22:43

그럽습디다. 보고싶습디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진실은 꼭 밝혀질것입니다. 그리고 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은 우리 국민이 응징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역사..참여정부 5년!! 정말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영원한 대통령이십니다.

전정숙 2009.06.14 12:10

이곳에 올때마다 눈물이나네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누령이 2009.06.16 14:33

너무 그럽네요 대통령님..

봉장 2009.07.01 23:2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제서야 처음으로 인사나누네요..

봉장 2009.07.01 23:2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제서야 처음으로 인사나누네요..

개인날 2009.07.04 11:54

안녕하세요. 노대통령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픡니다.

일련단심노짱 2009.07.08 15:3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자주 인사 드리겠습니다.

국밥집 2009.07.29 21:22

노 대통령님 아직두 믿겨지지않네요....언젠간 진실은 밝혀서 오해푸실겁니다.제가 노무현님 죽음으로 몰고간 놈들은 다죽일겁니다 ㅠㅠ사랑합니다.

변개나라 2009.08.06 10:02

우리아이들,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참여정부의 업적과 노통님을 꼭 이어가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거정 2009.11.27 13:38

꼭 한번 뵈고 두손 꼭잡고 "형님"하고 싶었는데...
그런 날이온다고 20여년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날아라토깡아 2009.12.23 20:27

부디 좋은 곳으로 가지길...

찬유현유 2010.02.18 04:38

내 아이에게 당신의 삶을 가르치겠습니다

비타민진 2010.04.28 13:05

정말 죄송스럽게도 잠시 세상살이 하면서 잊고 있었습디다.
불연듯 예전에 쓰신 책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울컥이는 마음을 다잡고 왔습디다. 그곳은 아마도 평안하시겠지요?

다점 2010.08.14 04:47

안녕하세요 나의 마음속 대통령님 ~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ㅎㅎ
보고싶습디다.

꾼이 2011.02.01 20:42

그럽고 또 그럽습디다.
우리나라에 대통령님같은 분이 있었다는거,
언제나 기억하며 뿌듯해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싶습디다.

한님 2011.04.28 23:38

자식에게 자랑할겁니다...대통령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을 보고 대통령님의 국민이었다는걸 말입니다..자식에게 사람사는 세
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칠겁니다,,
아,,근데요,,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직도 뻘뻘해집니다.ㅠㅠ

에클레시아 2011.06.17 16:28

대통령님도, 안녕하십니까..?
여긴..여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모두도 결국은 다 내려놓고 안녕을 고하겠지요.
잘 살아야겠어요..
그 날이 오면..얼싸안고 춤추는 그날이 오면.. 다시 뵈 수도 있을까요..?

손평쓰기

등록

목록

NO	제목	조회	글쓴이	등록일
18	글을 올려놓고 보니 (237)	61593	노무현	2009.02.22
17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58)	67554	노무현	2009.02.22
16	한국정치학회와의 대담 (45)	32567	운영자	2008.10.16
15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53)	30594	노무현	2008.10.02
14	회원 게시판은 30,000번째 글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304)	124593	노무현	2008.03.27
13	생활의 작은 기쁨 (185)	128080	노무현	2008.03.09
12	봉하마을 참 맛을 보고 가세요. (252)	148184	노무현	2008.03.06
현재글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119)	124448	노무현	2008.02.29
10	안녕하십니까-봉하에서 띄우는 두 번째 편지 (311)	163015	노무현	2008.03.03
9	부산 개성고(부산상고) 총동문회 (61)	60251	운영자	2008.02.29
8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인사말(봉하마을) (60)	31571	운영자	2008.02.26
7	[연설] 노무현 대통령 귀향 환영행사(밀양역) (30)	21640	운영자	2008.02.25
6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 노무현의 민주주의론 (48)	60556	노무현	2008.02.20
5	대통령 한 사람 힘으로 역사발전하는 것 아니다 (11)	13964	운영자	2007.11.11
4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5)	6483	운영자	2007.10.18
3	정치·복지·언론 후진국 벗어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4)	4707	운영자	2007.06.08
2	시민주권사회 위한 참여운동 펼치자 (7)	7097	운영자	2007.06.02
1	국방·외교·안보·통일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20)	27257	운영자	2006.12.21

노무현대통령 공식홈페이지



우 (121-89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 | 전화 1688-0523 | 팩스 02-713-1219 | 이사장 이병환 | 사업자번호 105-82-17699
COPYRIGHT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ALL RIGHTS RESERVED. | 이메일 knowhow@knowhow.or.kr | 노무현재단 찾아오시는 길

우 (621-803)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3 | 전화 055-344-1004 | 팩스 055-344-1007 | 이사장 권양숙 | 사업자번호 615-82-09681
COPYRIGHT © 재단법인 아름다운봉하 ALL RIGHTS RESERVED. | 봉하재단 찾아오시는 길

문의전화 최완·홍택이지·저작권 1688-0523 / 해외전용(직통) 070-7931-0535 / 요약·생가·자원봉사 055-344-1302 / 봉하장터 1599-1946 / 생가점터 055-344-1005